

# 세계영어 발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영어 발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김병선<sup>1</sup>, 김무학<sup>2\*</sup>, 손은경<sup>3</sup>

<sup>1</sup>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sup>2</sup>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과, <sup>3</sup>중부대학교 아동보육학전공

## A Study of College Learners' Perceptions on Good English Pronunciation for Activating World Englishes Pronunciation Instruction

Byung-Sun Kim<sup>1</sup>, Mu-Hak Kim<sup>2\*</sup>, Eun-Kyoung Son<sup>3</sup>

<sup>1</sup>VERUM Colleg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 Ang University

<sup>3</sup>Majoring in Childcare,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세계영어 발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좋은 영어 발음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0명의 대학생들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좋은 영어 발음은 미국인처럼 해야 하며,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은 좋은 영어 발음은 청자가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의미 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좋은 영어 발음은 유창성 측면에서 인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신감에 차 있고, 자연스러운 발음 속도라고 인식하였다. 넷째, 좋은 영어 발음은 강세, 억양,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좋은 발음 인식은 원어민다움과 이해 가능성 사이에 있다고 보여진다. 제언하자면, 세계영어 발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영어 발음이 노출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Abstract** This study was started as basic research for creating a background for World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in Korean English classe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Korean college learners on good English pronunci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volving 10 participants. Data analyses by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perception of participants on good English pronunciation was focused on accuracy. They believe that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and the intelligible pronunciation of native speakers are correct. Second, they recognized that good English pronunciation is understood by several listeners and the messages are clear. Third, they regarded fluency as good English pronunciation, which included confident pronunciation and the ability to pronounce with natural speed. Fourth, all students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English pronunciation with accents, intonations, and rhythms. Taken together, our findings reveal that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nts for good English pronunciation concerns both native language and intelligibility. It suggests that EFL learners need to be more exposed to various English pronunciations (accents) before starting to instruct for World English pronunciation.

**Keywords** : World English, World Englishes Pronunciation, EFL College Students, Good English Pronunciation,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Mu-Hak Kim(Chung Ang Univ.)

email: muhaki@hanmail.net

Received April 4, 2022

Accepted July 7, 2022

Revised June 7, 2022

Published July 31, 2022

## 1. 서론

영어학습자라면 누구나 영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영어의 4가지 영역 중에서도 영어 말하기는 단연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은 음성언어보다 문법과 독해 중심의 문자언어 교육이 지배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역량은 매우 취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im과 Lee[1]는 EFL 상황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영어 말하기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신감 결여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Kim과 Won[2]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간 영어를 공교육으로 받았음에도 외국인 앞에서 제대로 영어로 말을 하지 못하는 '병어리 영어'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유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구어 영어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Lee[3]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학생들이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교실 안과 밖에서 구어 영어에 대한 노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낮은 수준은 그들의 경험과 큰 차이를 보이기에 영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영역의 요인들이 영어 말하기 능력 신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Ko[4]는 외국어 학습 관련 불안감은 말하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보다 앞서 Kim과 Kim[5]은 영어 말하기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영어 능력과 상관없이 교실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영어 말하기 연습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Price[6]는 발음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창피나 당황스러운 상황의 직면 가능성이 영어 말하기 불안감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ice의 주장을 따라 영어 말하기 능력 부족 현상을 영어 발음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Kim[7]은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선 발음이라고 주장하였다. Nguyen[8] 또한 베트남 대학생 인식 조사에서 영어 발음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사소통에 가장 큰 장애물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발음에 민감성을 보인다. 일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수락 연설을 시청하고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설자의 영어 실력 평가에 관한 실험을 하였는데, 영어 원어민들은 유창하다고 긍정평가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악평을 내렸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연설자의 발음이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좋은 발음, 즉 영어권 사람들이 구사하는 발음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 한다는 의미는 영어 원어민처럼 발음을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언어 문화권 화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세계영어(World Englishes) 발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영어나 영국영어를 표준발음으로만 용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영어권에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한 비영어권 사람들이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유사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발음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한국식 영어 발음은 사용하기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9]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영어 원어민과 다른 발음으로 인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축되어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의 말하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 원어민과 같은 정확한 발음보다는 이해 가능한 발음, 즉 명료도가 높은 발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Jenkins[10]의 주장은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준다. 즉 영어 원어민(Inner circle)뿐만 아니라 제2언어나 공용어 사용자(outer circle)와 영어를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expanding circle)들의 의사소통에서 세계영어 발음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영어 발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좋은 영어 발음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영국과 미국은 물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세계 시민들과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세계영어 발음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재조명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과연 좋은 영어 발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영어 발음을 바라보는 현 상태를 진단해보고, 세계영어 발음으로 지향해 나아가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선호하는 좋은 영어 발음은 어떤 것인가?
- 2) 교육 현장에서 세계영어 발음 교육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2.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영어 발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는 참여자 개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포함하기에 양적 연구로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다[11]. 즉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세계를 해석하고자 할 때, 자료를 창출하기 위하여 객관적 실재(objective realism)에 기초한 양적 연구가 아니라, 간 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기반한 질적 연구 접근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 면담을 위한 질문은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형식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바를 최대한 진솔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면담 방식은 결과의 타당성이 높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마지막으로 연구의 분석적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연구참여자의 피드백을 받는 참여자 검토[13] 과정과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동료의 검토[14] 과정을 병행하였다.

### 2.2 연구대상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강원도에 소재한 C 대학에 2022년 1학기 개설된 '대학 영어 I'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1차로 카톡 단체 채팅방에 '좋은 영어 발음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질문을 올리고,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2차로 6개 분반 총 217명의 학생 중에서 102명이 답변을 해주었고, 이 중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답변을 한 32명의 학생들을 연구참여자 후보군으로 압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대화를 통해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1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실명은 알파벳으로 대신하였고, 연구목적 및 절차에 관한 설명도 충분히 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 불편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수집된 모든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할 것임도 서약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비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5명으로 동일하였고, 전공은 간호 2명, 항공운항 2명, 미디어컨텐츠 2명, 치위생 1명, 건축 1명, 스포츠 2명이다. 이들의 영어 수준은 교내에서 매학기 진행되는 모의토익 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점에서 800점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점수 분포의 차이는 입학성적과 밀접하게 관계있다고 하겠다. 영어 발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외여행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로 알아보았는데, 해외여행 유경험자가 3명으로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order	name	sex	major	overseas experience	TOEIC (score)
1	A	F	nursing	experienced	720
2	B	F	nursing	none	800
3	C	F	stewardess	experienced	550
4	D	F	media	none	420
5	E	F	media	none	320
6	F	M	pilot	experienced	690
7	G	M	dental	none	450
8	H	M	architecture	none	320
9	I	M	sports	none	310
10	J	M	sports	none	270

### 2.3 자료수집

심층 면담은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개인별로 평균 5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2월 28일~29일 중 택일하게 하고 면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때까지 수시로 연락을 이어나갔다.

면담은 코로나-19 상황이라 면대 면은 불가능하여 비대면 방식인 줌(zoom)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비구조화 면담을 통해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질문하여 응답자들이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비구조화된 질문은 Table

2와 같다. 질문들은 면담 전에 작성하였고, 면담하면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하였다.

Table 2. Questions in unstructured interviews

Questions
1. What does good pronunciation involve?
2. Why is important to have a good pronunciation?
3. Is native-like pronunciation important to you?
4. Are you satisfy your pronunciation?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좋은 영어 발음이 무엇인가?’라는 큰 틀의 질문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깊은 이해를 끌어내고자 일상적인 대화로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주제와 관련한 깊은 대화를 하였다.

##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을 사용하였다[15,16]. 비교분석법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 상위 개념과 하위개념으로 주제의 범주로 나누는 자료 분석 방법이다. 연구자는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절차를 거치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개방 코딩 과정으로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분류하였다. 두 번째, 범주화는 귀납적 과정으로 개방 코딩에서 생성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다. 세 번째, 분류된 자료들을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에 이름을 붙였다. 네 번째, 연역적인 범주 확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구성된 범주가 자료를 잘 표현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분석작업을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타당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6]. Lee[16]에 따르면 독자가 연구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질적 연구 성공의 관건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녀가 소개한 타당성 확보의 4가지(신뢰성, 확실성, 의존성, 전이성) 중, 본 연구는 신뢰성(credibility)과 확실성(conformability)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신뢰성을 위해 연구 기간의 연장(연구참여자와 연구자와의 관계 형성 및 충분한 자료 수집)과 동료검토(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하고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를 시도함으로써 충분한 자료수집과 다른 연구자의 시각으로 객관화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하

고 정밀하게 전사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면담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개별 연락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해석이 타당한지 검토하게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2인의 동료 교수(아동복지 전공자와 스포츠 전공자)들과 소통을 통해 자료 분석 전 과정을 공유하고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검토에 참여한 아동복지 전공 A교수는 최근 연구자와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공동 연구로 3편의 논문을 학술등재지에 게재하였고, 스포츠 전공 B교수는 박사논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를 질적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 접근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과 1차로 연구수행을 마친 후 1회 2시간의 대면 모임과 SNS(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연구결과 도출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A교수는 질적연구방법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B교수는 자료수집 및 분석 전반을 코치해 줌으로써 본 연구가 질적 연구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3. 연구 결과 및 논의

좋은 영어 발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Table 3. themes and sub-themes

sub-themes	themes
like American speakers	accurate
intelligible to native speakers	
understood by a variety of listeners	comprehensible
making the message clear	
pronouncing with confidence	fluent
natural speed	
pronunciation with intonation	rhythmical

### 3.1 정확한 발음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발음은 정확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발음의 대표적 화자는 미국인이다. 특히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미국인처럼 발음해야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발음만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전통이 오랫동안

동안 이어져 왔다는 Kirkpatrick[1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영어 교실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하겠다. 실례로 Chung과 Kim[18]의 세계영어 발음에 대한 성인 학습자(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대상)의 인식과 태도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구사하는 발음이 미국영어와 비슷하다고 인식하였고, 미국식 발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영어권 원어민들을 기준으로 한 영어 발음 위주의 사고는 Kim과 Ko[19]의 연구와 Lee[20]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은 정확성에 대한 태도가 영어권 원어민들의 발음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 발음 미국식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발음해야 듣기도, 말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발음하면 미국인이 하는 영어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영어사전의 발음 기호를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좋은 영어 발음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하니까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는 미국인들의 발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어민하면 미국인이고, 이들과 같이 발음을 구사할 때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E)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구사하는 영어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원어민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정확한 발음, 즉 좋은 발음이라고 인식하였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반복해서 원어민이 ‘Pardon?’이라고 한다면 결국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의사소통에 필요한 발음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ble: focusing on meaning such as grammar, cultural and pragmatic aspects) 발음이면 충분하고,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구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 동향[21,22]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원어민이 들었을 때 이해 가능해야 한다고(intelligible: focusing on words such as accents, stress and intonation)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원어민 발음과 같아야 정확하고 좋은 발음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각각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 발음은 영어권 국가에 사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 가능한 정도의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 불가능한 발음은 정확하지 않고요, 당연히 좋고 할 수 없겠지요.” (연구참여자 J)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 발음은 원어민이 잘 들을 수 있는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제가 평가하는 거와 같은 이치 같아요. 비원어민이 아니라 원어민이 알아들었느냐가 좋은 발음의 기준이라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 3.2 의미에 초점을 맞춘 발음

Yu[23]는 발음 교육은 원어민 수준에 도달하기보다는 이해가능한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원어민 같이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발음만 구사할 수 있다면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첫째로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것은 발음이 영어권 여부와 상관없이 청자들(listeners)에게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다시 말해 청자가 들었을 때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영어 발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발음의 판단은 결국 청자에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좋은 영어 발음은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것이라 진술하였다. 즉 의사소통은 의미 전달에 있으며 발음 또한 의미 전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는 인식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좋은 영어 발음이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누구나 이해하는 발음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G)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 발음이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대화의 주된 수단이다 보니까 발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좋은 발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H)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 발음은 의미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그에 반응한다면 좋은 발음 아닐까요?.” (연구참여자 E)

### 3.3 유창한 발음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발음을 유창함(fluid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유창성은 정확성(accuracy)과는 다른 개념이다. 후자가 말하기 등의 수행에서 오류를 피하는 능력[24]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빠른 속도로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휴지(pause), 오류 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25]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한다면 유창성은 정확성을 포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영어 화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발음을 할 때 좋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감은 곧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발음하는 것인데,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발음할 때 좋게 인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 좋은 발음은 속도에 있어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발음이 잘 들릴 수는 있지만, 유창한 발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Choi[26]는 정상 발음 속도(160 WPM: Words Per Minute)가 아닌 느린 발음 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왜곡된 청각 이미지를 형성하여 원어인 발음을 듣는데 매우 어렵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음 속도 노출이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속에서 같은 맥락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언젠가 영어로 말하거나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해서 주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좋은 영어 발음이란 막힘없이 술술 자신 있게 내뱉는 부드러운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C)

“발음을 할 때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 발음은 망설여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못한 발음으로 연결되어 유창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F)

“좋은 영어 발음이란 저는 자연스럽게 속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대부분 미국 영어 발음에 맞춰 발음이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미국 발음에 맞춰진 발음이 무조건 좋은 영어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발음을 꽤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도가 아주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보통 속도로 내는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 봅니다.” (연구참여자 G)

### 3.4 리듬이 있는 발음

한국어는 어휘 강세가 없는 음절 박자 언어(syllable-timed language)인 데 반해,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라는 점이 한국인들이 발음상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세(stress), 억양(intonation), 리듬(rhythm)과 같은 초본절음 습득은 좋은 발음을 위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일찍이 Koo[27]는 억양은 상대방의 말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별 음가의 정확성이 아니라 억양이라고 Pike[28]가 주장한 바 있는데, 연구참여자들도 이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억양이 있는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억양이 없는 발음은 부자연스럽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데 악센트, 무음, 연음을 잘 살려서 '리듬감'이 느껴지면 제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데도 좋은 영어 발음이라고 느껴집니다. 한국어는 위에서 말한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오래 써온 제가 영어를 발음하면 이런 리듬감이 자연스럽게 않아 주저하거나 부끄러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가 인식하는 좋은 영어 발음이란 리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영어입니다.” (연구참여자 A)

“좋은 영어 발음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제가 하는 말의 의도와 감정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발음 기호 규칙에 맞게 적절한 길이와 억양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슬퍼요'라는 단어를 말할 때 슬-퍼-요 보다는 '슬-퍼\요'가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J)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영어 발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 좋은 영어 발음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 좋은 영어 발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좋은 영어 발음은 정확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미국인 화자의 발음을 표준으로 인식하였고, 비 원어민이 아니라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좋은 발음이라 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은 좋은 영어 발음은 원어민 여부와 관계없이 청자가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은 Levis[29]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두 가지 발음 모델, 즉 원어민다움의 원리(Nativeness Principle)와 이해 가능함의 원리(Intelligibility Principle)로 나뉜다는 주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셋째, 대학생들은 좋은 영어 발음은 유창성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구사하고, 느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속도로 발음을 구사해야 좋은 발음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좋은 영어 발음은 단어 수준은 물론 문장 수준에서 강세와 억양 등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통해 교육의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여전히 좋은 발음과 원어민, 특히 미국 영어 발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친숙함의 차원에서 미국 영어를 선호한다는 Jung[3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영어를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이러한 고정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아시아, 남미, 유럽 등과 같은 비영어권 화자 발음에 대한 노출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발음이 특정 영어권 국가의 발음만이 아님을 강조하며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영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좋은 발음을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세계영어 발음 교육을 위한 청신호라고 할 것이다. 영어권 청자만이 아닌 모든 영어 청자를 고려하고, 의미 전달이 잘 전달되는 발음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시험 위주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환경하에서도 학습자들이 가지는 발음에 대한 인식의 성숙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결국 교육 현장에서의 발음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이해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원어민과 같은 발음 교육을 지양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발음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어졌다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어 발음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자연스러운 발음 속도와 리듬이 있는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둘을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세계 발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학습자들이 정상 발음 속도인 160WPM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강세, 억양 등 리듬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교실 안은 물론 밖에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리듬을 동반한 정상 속도의 자연스러운 발음이 구사될 때, 학습자들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세계영어 발음 교육의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영어 발음 일변도의 우리나라 영어 교실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영어의 주권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 시민에게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 영어교육 정책입안자들과 현장의 영어 교사, 교수자들은 다양한 영어 발음에 기반한 듣기 시험 정책 및 교과과정에서도 다루려는 노력이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1] B. S. Kim, A. R. Lee, "The effects of voice recording assignment on English spe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English clas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Vol.26, No.3, pp.121-138, Sep. 2019. DOI: <https://doi.org/10.15334/FLE.2019.26.3.121>
- [2] H. J. Kim, H. H. Won, "Search for improvement of English education system to enhance communication abilit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Denmark",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31, No.4, pp.1009-1020, Aug. 2019.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9.8.31.4.1009>
- [3] B. M. Lee,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exposure to spoken English: Focusing on the amount of exposure time and types", *English Teaching*, Vol.63, No.4, pp.349-370, Dec. 2008. DOI: <https://doi.org/10.15858/engtea.63.4.200812.349>
- [4] Y. A. Ko, "Practical implications of shadowing practice for EFL learners' speaking anxie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5, pp.1019-1034, Oct. 2019.
- [5] E. K. Kim, J. Y. Kim, "Self-efficacy, anxiety and anxiety coping strategies in an EFL speaking class",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No.30, pp.39-62, Dec. 2014. DOI: <https://doi.org/10.15755/jfs.2014..30.39>
- [6] Price, M. L,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foreign language anxiety: Interviews with highly anxious students. In E. K. Horwitz & D. J. Young (Eds.)",

- Language anxiety: From theory and research to classroom implications(pp.101-108),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1.
- [7] C. H. Kim, "Pre-service English teachers' cognition in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No.65, pp.47-78, Jun. 2013.
- [8] Nguyen, L. T, "Vietnamese EFL learners' pronunciation needs: a teaching and learning perspective", *The TESOLANZ Journal*, No.27, pp.16-31, Dec. 2019.
- [9] Y. S. Kang, "A linguistic defence for Konglish", *Journal of Humanities*, No.60, pp.149-173, Feb. 2016.
- [10] Jenkins, J,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11] H. Y. Jang, E. O. Song,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in a Recent 10-year Period: Focused on JKAN and ANR",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20, No.2, pp.100-112, Nov. 2019.
- [12] N. M. Shin, S. J. Chang,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AI Interview for University Admiss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7, pp.242-251, Jul. 2021.
- [13] Morse, J. M, Barrett, M, Olson, K, Spiers, J, "Verification strategies for establishing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Vol.1, No.2, pp.13-22, Jun. 2002.
- [14] Patton, M. Q,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2015.
- [15] S. M. Yun, "Exploratory Study on Experience in School Counseling of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under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3, pp.183-201, Dec. 2021.
- [16] S. H. Lee, "Qualitative research: The theory to the practice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5, pp.1291-1301, May. 2021.
- [17] Kirkpatrick, A, "Setting attainable and appropriate English language targets in multilingual settings: a case for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17, No.3, pp.376-391, Oct. 2007.
- [18] D. E. Chung, H. D. Kim, "Adult learners's re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s world Englishes pronunciation",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61, No.1, pp.229-255, Feb. 2017.
- [19] M. Y. Kim, K. H. Ko, "Teaching English as a world languag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views of English pronunciation", *Primary English Education*, Vol.20, No.4, pp.269-296, Dec. 2014.
- [20] H. Lee, "World Englishes in a high school English class: A case from Japan. In A. Matsuda(ed.), *Principles and Practics of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pp.154-168.
- [21] Gilakjani, A. P, Sabouri, N. B, "How can EFL teachers help EFL learners improve their English pronunciation?",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Vol.7, No.5, pp.967-972, Sept.. 2016.
- [22] Munro, M. J, Derwing, T. M,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redux", *Journal of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Vol.6, No.3, pp.283-309, Nov. 2020.
- [23] K. A. Yu,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Oriented Pronunciation Instruction and Student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3, pp.253-265, Jun. 2021.
- [24] Skehan, P, Foster, P, "The influence of task structure and processing conditions on narrative retellings", *Language Learning*, Vol.49, No.1, pp.93-120, Mar. 1999.
- [25] Segalowitz, N, "Automaticity and attentional skill in fluent performance", in H. Riggenbach (ed.), *Perspectives on Fluen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200-19. 2000.
- [26] I. C. Choi ". Impact of varying degrees of English speech rate on listening comprehension",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13, No.1, pp. 99-119, Apr. 2010.
- [27] H. S. Koo, "A acoustic study of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pitch accents uttered by Korean speakers ", *The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Vol.10, No.2, pp.223-236, Jun. 1991.
- [28] Pike, K. L,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5.
- [29] Levis, J. M, "Changing contexts and shifting paradigms in pronunciation teaching", *TESOL Quarterly*, Vol.39, No.3, pp.369-377, Sep. 2005.
- [30] W. H. Jung, "Attitudes of Korean EFL learners towards varieties of English", *English Teaching*, Vol.60, No.4, pp.239-260, Dec. 2005.

김 병 선(Byung-Sun Kim)

[정회원]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어학석사)
- 2012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 2021년 9월 ~ 현재 :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정보이사

<관심분야>

영어 교수 방법, 영어 말하기, 자기주도학습



김 무 학(Mu-Hak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 2022년 ~ 현재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영어 쓰기, 영어 발음, 영어 교수 방법

---

손 은 경(Eun-Kyoung Son)

[종신회원]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아동보육학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부모교육, 보육과정, 혁신교수법, 질적연구방법론